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께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합니다. 주는 신실하시고, 선하시며,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함정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주 안에서 가족이 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글을 드리게 된 것은, 최근 1~2 년간에 걸친 재판에 관한 결과 및 그에 따른 국제 복음 그리스도 교단의 입장을 알려 드리기 위함입니다.

지난 30 년간, 모든 희생을 감수하며, 일본 선교에 몸 바쳐왔던 변 재창 선교사는 과거 본 교단에 몸을 담고 있었던 여성 A 씨의 허위 고소로 인해, 2010 년 1 월 28 일, 일본 경찰에 갑자기 체포되는, 예상 밖의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변 재창 선교사는 체포된 이후, 약 5 개월 반을 구치소에 구류되어, 접견 금지 처분 및 독방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2010 년 7 월 7 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에도 행동의 제약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로 부터 파렴치한 범죄자라는 비난을 받아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약 1 년 4 개월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힘든 투쟁의 날들을 보낸 결과, 드디어 아래와 같은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련 속에서도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위로와 격려 및 기도 가 큰 힘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범죄 사실이 없는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2011 년 5 월 20 일, 미토(水戸)지방법원 츠치우라(土浦)지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장은, 모든 결과를 주님의 손에 맡기고 담담히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변 재창 선교사에게 「피고인은 무죄입니다」라는 말을 서두로, 약 2 시간에 걸쳐,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들어, 상세하게 검찰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재판장은 판결을 통해서, 객관적인 증거에 의거하여, 검찰이 주장하는 범행 일시에, 변 재창 선교사는 한국에서 오신 김 한중 선교사 일행의 방문을 받아, 그들과 함께

외출 중이었으며, 그 시간에 범행 현장이라고 지목되는 자택 침실에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의 사실과 결정적으로 모순되는 A 씨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A 씨가 범행 일시를 지목한 이유에 비추어보면, 범행 일시를 잘못 지목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검찰이 기소한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확률은 0.14%, 즉, 1,000 건 중, 1.4 건만이 무죄가 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얼마나 번 재창 선교사의 무죄를 증명하는 증거가 확실적인 것이었는지, 또한, 이 고소가 얼마나 허위였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전도를 방해해 오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번 판결은 밀실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무죄가 되었을 뿐이다」라는 왜곡된 선전에 더욱 더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번 재창 선교사와 본 교단은 약 3 년여에 걸친 기간 동안, 어떠한 일을 당하여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오직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심지어, 이번과 같은 굴욕적인 체포와 구금, 형사 재판과 민사 소송을 당하면서도 또 다시 참고 기도하며 인내하였습니다. 또한, **범죄 사실 없는 무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매스컴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더욱 더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며, 번 재창 선교사와 본 교단을 비난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개인과 교단을 넘어, 일본 전체의 복음 선교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마태 18:17) 는 주님의 말씀과 자신의 결백함을 「가이사에게 호소」할 수 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교훈 삼아,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통하여 저희들의 결백함을 증명하고자, A 씨와 그 배후 세력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